



박인비 “올해 내 골프에 만족 US오픈서 이어갈 것”

박인비가 10일 US여자오픈 골프 연습 라운딩 2번홀에서 벙커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 여제” 박인비(32)가 올해 좋은 흐름을 이어가며 US여자오픈에서도 이어나갈 것이라는 각오다.

박인비는 1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스 골프클럽 사이프러스 코스와 잭라잇 코스에서 열리는 US여자오픈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올해 정말 일관성 있게 잘 했다. 결과에 만족하고, 현재 나의 골프에 행복하다”고 말했다.

박인비는 올해 2월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면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20승(메이저 7승)을 채웠다. 그 밖에 올해 준우승 3회 등 톱5에 6차례 들었다.

지난주 열린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VOA) 클래식에서도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박인비는 “메이저대회를 앞두고 대회에 나가는 것을 좋아한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코스·도시에서 쳐도 상관없다. 나의 경기력을 시험할 뿐이다. 나의 게임이 어떻게,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비는 VOA 아메리카 클래식에서 유소연(30)과 3라운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최종 라운드를 함께 챔피언 조에서 쳤다.

US여자오픈에서도 1·2라운드에서 유소연, 에리아 쩌타누간(태국)과 한 조에서 치게 됐다.

박인비 “애덤 스코트의 칭찬 영광” 2개 코스에서 열리는 대회 “코스 파악 쉽지 않지만 최선”

박인비는 “지난주 연습라운드에서도 유소연과 함께 했다. 이번에 유소연에게 ‘우리는 6일 연속으로 같이 치는 것 같다’고 했다. 절친한 친구와 같이 치는 것은 재밌다. 에리아와 치는 것도 항상 즐겁다”고 기대했다.

올해 US여자오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2월로 일정이 밀렸다. 해가 짧은 상황을 고려해 2개 코스에서 나뉘어 열린다.

박인비는 “원래는 비시즌인 기간인데 뭉가들 준비하고 있으려나 정말 다르다. 날이 추워지고 있어서 기분이 이상하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US여자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정말 다른데, 재밌다”고 말했다.

이번 주 연습 라운딩에서 박인비는 2개 코스를 모두 둘러보려고 노력했다. 보통 연습라운드에서는 하루에 9개 홀을 도는데, 이번에는 8일부터 사흘 동안 9개 홀-18개 홀-9개 홀 순으로 연습라운드를 했다.

박인비는 “모든 코스를 보려고 했는데 충분하지는 않았다. 지난주 대회에 출전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정으로 연습했다. 사흘 동안 2개 코스를 파악하는 것을 어렵지만, 최선을 다했다. 모든 선수에게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했다.

그는 “사이프러스 코스는 그리니 넓다. 코스가 길고 그리니 커서 롱 퍼트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올해 초 애덤 스코트(호주)이 ‘박인비는 훌륭한 박자를 가졌다. 부진할 때 박인비의 박자를 따라하려고 노력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박인비는 “스코트는 훌륭한 스윙을 하는 선수여서 나의 우상과 같았다. 그는 항상 멋진 스윙을 하는 훌륭한 골퍼 선수다.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은 영광이다”라고 고마워했다.

이어 “나의 리듬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 나에게도 자연스러운 것인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자골프 인기가 많은 한국에서의 삶은 궁금해하는 미국 기자들에게 박인비는 “미국에서는 여자골프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를 알아보신다. 한국은 많은 사람이 여자골프 선수들을 알아서 길에서 많은 분이 저를 알아보신다. 심지어 차를 몰고 요금을 낼 때도 알아보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당선

“변화와 혁신 여망 잊지 않을 것”

전갑수(60·사진) 광주시배구협회장이 10일 치러진 제7대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됐다.

전 후보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대구 시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회장 선거에서 20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13표(득표율 65%)를 획득, 이재할 후보(현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 후보가 지난 3년여간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수장으로 협회를 이끈 만큼, 현직 프리미엄에 맞서 전갑수 후보의 고전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지도자, 선수, 심판 선거인단, 그리고 시·도협회장들이 그동안 협회의 파행적 운영에 반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판세가 역전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갑수 당선인은 “대한장애인배구협회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배구인들의 여망이 만들어 낸 결과”라면서 “그 동안의 노후와 시도협회장, 각 위원회, 선수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대한장애인배구협회의 미래 10년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원해 준 장애인 배구인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그 동안 협회를 잘 이끌어 주신 이재할 후보께도 심

심한 위로를 건넨다”고 말했다.

전 당선인은 장애인배구 장기 발전전략 수립, 아시아를 선도하는 장애인배구 육성, 어울림배구대회 확대 및 특수체육 강화, 협회 재정 안정성 확보 및 내실화, 직업 안전성 확보 및 취업지원 등, 공정하고 투명한 대회 운영 등을 공약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와 함께하는 홈트... 동영상 제작 무료 배포

조선대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체육활동이 줄어든 광주·전남 청소년들을 위해 맞춤형 홈트레이닝 동영상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다. <사진>

10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미술체육대학 체육계열 학과들인 스포츠산업학과,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공연무용예술과가 협업, ‘조선대학교와 함께하는 즐거운 홈트레이닝’을 제작한다.

홈트레이닝 영상은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급격히 감소한 광주·전남 초·중·고 학생들의 체력관리를 돕기 위해 제작했다.

‘조선대학교와 함께하는 즐거운 홈트레이닝’은 오는 24일까지 매주 3개, 총 30개 동영상 제작된다. 영상에는 순발력, 민첩성,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 다각적으로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담겨있다.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농구, 배구, 축구, 태권도, 육상, 댄스, 발레 등의 종목별 초급, 중급, 고급기술 등도 포함돼 전문성을 높였다.

조선대학교 체육계열 학부 및 대학원생이 재능기부로 출연해 운동 방법을 시연한다.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기보배, 아시안게임 110m 허들 금메달리스트 정혜림도 출연한다.



홈트레이닝을 위해 제작된 홈트레이닝 동영상의 한 장면이다. /연합뉴스

조선대 미술체육대학은 지난 9일 광주시교육청, 10일 14일에는 전남도교육청과 ‘조선대학교와 함께하는 즐거운 홈트레이닝’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매주 영상이 조선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면, 교육청이 광주·전남지역 학교에서 체육수업 등에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미술체육대학 김민철 교수(스포츠산업학과)는 “이번 프로젝트는 학교 간 협업과 재능기부,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우수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축구계 또 하나의 큰별 지다

1982년 월드컵우승 이끈 이탈리아 ‘축구 영웅’ 로시 별세

축구계의 큰 별 하나가 또 졌다.

이탈리아 축구 영웅 파올로 로시가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아르헨티나 축구의 레전드 디에고 마라도나가 현지시간 지난달 25일 심장마비로 사망한 지 2주 만이다.

이탈리아 TV 채널 라이(RAI) 스포츠 등 현지 언론은 10일(한국시간) 로시가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로시의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라이는 로시가 난치병을 앓아왔다고 전했다. 잉어에서 센터 포워드로 전향한 로시는 1970~80년대 이탈리아 축구를 대표하는 공격수였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명문 유벤투스와 AC밀란 등에서 뛴 로시는 이탈리아 국가대표로 1977년부터 1986년까지 활약하며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48경기에 출전해 20골을 터트렸다.

로시가 자신의 참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은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였다.

그는 당시 대회에서 6골을 터트려 득점왕에 오르며 이탈리아에 44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안겼다.

월드컵에서의 활약으로 로시는 그해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도 수상했다.

로시는 이탈리아가 4위를 차지한 1978년 아르헨



생전의 로시(왼쪽)와 마라도나.

티나 대회에서도 3골을 넣어 월드컵에서만 개인 통산 9골을 기록했다. 로시는 역대 이탈리아 국가대표 중에서 크리스티안 비에리, 로베르토 바조와 함께 월드컵 최다 득점 선수다. /연합뉴스

마라도나 유산 놓고 16명 ‘상속 분쟁’

친인척들 573억원 유산 분배 싸움 시작... ‘마치 월드컵 같아’

최근 심장마비로 사망한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의 유산 3700만 파운드(약 573억원)를 놓고 최소 16명의 친인척이 ‘상속 분쟁’에 나섰다. 영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지 ‘더선’은 10일(한국시간) “마라도나의 친인척들이 유산 분배를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라며 “마라도나의 유산은 최소 16등분으로 나뉘어 전 망”이라고 보도했다.

마라도나는 스위스, 두바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에 있는 부동산과 다양한 럭셔리품을 비롯해 스포츠 브랜드 푸마와 음료회사 코카콜라 등과 계약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 등을 합쳐 3700만 파운드의

재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선에 따르면 마라도나의 유산을 놓고 최소 16명의 친인척이 ‘상속 분쟁’을 벌이게 됐다.

마라도나는 2003년 이혼한 클라우디아 비아파네 사이에서 두 명의 딸을 뒀지만, 혼외로 얻은 자녀가 더 많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녀만 8명이다. 이에 대해 더선은 “마라도나의 형제들까지 합쳐 최소 16명이 상속 분쟁에 뛰어들게 됐다”라며 “마라도나의 유산을 놓고 벌이는 싸움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월드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이웃사촌
2관	도굴
3관	스웨그, 잔칫날, 레벨 16
4관	이웃사촌
5관	런
6관	조제
9관	조제
7관	사네카를
8관	사네카를

미드나이트 스키, 스카이라인 친구들, 로보시터의 비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더 프롬, 프리키 데스데이 순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초연 21회

시간 속의 도시

2020. 12. 3.(목) ~ 2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작가지원 공모전시

시간 속의 도시

2020. 12. 3.(목) ~ 2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광주시립발레단 제127회 정기공연

잠자는 숲 속의 미녀

2020.12.18.(금) ~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GAC기획공연-포시즌

선우예린 피아노 리사이틀

2020. 12. 30(수)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